

##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이 호 진 \* · 류 근 영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부교수\*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의류학 전공

###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of Materials of Man' Fashion in 1990's

Hyo-Jin Lee\* and Geun-Young Ryu

School of Life Science,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Manafement,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Each and everything named fashion together with clothes were limited in the boundary of women and men's wear has been slow and narrow in changing speed compared to women's, even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accordance time.

But maintaining the basic features, men's wear in the latter 20th century has undergone diverse change in the part of materials such as various synthetic fiber, glass, metal, artificial leather and the see-through fabric able to seeing the body wearing the clothes.

Therefore, the aim and definition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ystematic framework giving help to develop men's wear design newer and more various by considering moulding of materials which existing men's wear could not show up and by grasping material trend of men's clothes in 1990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 (1) Material containing lustering is categorized as Velvet, Silk, Lustering materials by synthetic fiber and Lustering materials by additional substance.

The Velvet generally acknowledged having something to feel womanly image shows the bisexual character coexisting feature of men and women after grafting with men's fashion.

The Silk was endowed the role as means of pleasure to express beyond boundary of sex breaking the existing consciousness which men should wear male clothes, not considering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lustering made by synthetic fiber expressed modern sensitivity aesthetically to the suit.

The lustering materials made by additional substance is seen mixed masculine character with womanly character.

- (2) See-through materials are acknowledged as decadence beauty caused by expanding subjective awareness in beauty.

- (3) Materials by the sorts of Net is categorized as Lace, Knit

The Lace expression seemed to emphases the human liberation of men and women and the humanity from liberation of subjecthood.

The Knit can be felt both woman's image and man's image as bisexual image, not raising only one side sex.

(4) Elastic materials offered the opportunity to approve exposure in a time when exposure of men's body was not granted ethically.

(5) Leather was shown as indication of social status and inferiority and expression of collective resistance against sexual stagnation of men and women.

*Key words* : material containing lustering, see-through materials, materials by the sorts of net, elastic materials, leather.

## I. 서 론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의복은 착용자 자신의 표현수단으로써 문화적 매체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 행동, 양식, 감각 등과 더불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반영하는 상징적 표현 매개체로 당시 세대를 대변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 더욱이 오늘날의 의류산업이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의복의 매력과 중요성은 더 명백해졌다.

그 동안 의복과 함께 패션이라 칭하여지는 모든 것은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 사회의 통념이었다. 특히 현대 패션은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인식되어지고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유행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의 폭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남성복의 경우 그 기본 형태는 유지되는 가운데 소재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는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거대화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로 남성복에 있어서도 스타일의 다양화와 유행의 단 사이클화 개성화, 패션화, 고급화 되어감에 따라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olin McDowell은 1960년대를 패션의 주인 공들에게 현대라고 불릴 수 있었던 초창기라고 하였으며<sup>2)</sup>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합성섬유, 유리, 금속, 인조가죽 그리고 몸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반투명직(see-through fabric)이 나오는 등 의복 재료 부분에서 나날이 그 범위가 넓혀져 가고 넓혀졌다<sup>3)</sup>.

남성복은 2차 세계 대전 후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호경기를 이루었으며 기성복 산업의 발달과 함께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리고 하위문화의 주무대였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때까지 만해도 남성복 소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소재와 색상 그리고 패턴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천을 거쳐 남성복의 패션화 경향은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하여 1990년대 와서는 세기말이라는 불안심리와 밀리니엄의 희망적 사회 배경과 함께 여성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남성복의 독특한 패션세계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 20세기 전반기 남성복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트(suit) 중심이었다면 후반기부터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방식의 담습을 거부하는 젊은이들 중심의 의복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남성복의 흐름을 하위문화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선입견과 편견이 붕괴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1990년대의 남성복의 소재 경향을 파악하여 기존의 남성복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의 조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좀 더 새로우면서 다양한 남성복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형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단행본과 석·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간행물들을 참고하였으며 사진자료 분석을 위해서 1990년대 이후 발간된 국내외 패션 관련 간

1) 유정하,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p.1.

2) Colin McDowell, *The Man of Fashion*, Thames & Hudson, p.138.

3) 정홍숙, 북식문화사, 교문사, p.309.

행물 및 잡지 그리고 신문자료와 internet site를 통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II. 하위문화와 남성복 소재

20세기 후반기 젊은이들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아이디어로 의복의 착장 방법이나 형태, 소재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복식에서 탈피하여 발전시켜 영역의 폭을 넓혔으며 이것이 하이 패션(High Fashion)에 수용되어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남성복 소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20세기 후반의 하위문화 남성복에 응용된 소재의 다양한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10년 단위로 고찰하였다.

### 1. 1960년대

영 패션(Young Fashion) 시대라 불리는 1960년대는 세계가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로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편안한 물질주의를 추구했던 반면 후반에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도전하면서 물질주의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젊은 세대를 대표했던 락스타(Rock Star)들의 부상으로 그들은 강한 자기 주장을 표출하였으며 비틀즈(Beatles)의 출현은 영 패션을 더욱 가속화시켰다<sup>4)</sup>. 더불어 잡지, TV, 영화 등의 대중 매체 발달로 대중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였고 1969년 미국 아폴로11호가 달착륙에 성공함으로써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미·소간의 냉전이 심화되었고 베트남전은 미국내 사회혼란을 가져와 반전 운동으로 신좌파(新左派)와 히피(Hippies)를 탄생시켰다<sup>5)</sup>.

또한 옵아트(Op Art), 팝아트(Pop Art)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예술을 대중화시킨 새로운 예술양식으로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이런 예술양식의 흐름에 따라 부조화되는 색과 화려하고 번쩍이는 장식으로 표현되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이 등장하였고 영국에서는 카나비 스트리트(Canaby Street)와 킹스로드(King's Road)를 중심으로 영국은 진부하고 시대에 뒤쳐졌다는 이미지를 벗고

'Swinging London'이라고 불릴 만큼 열광적인 비틀즈와 롤링스톤(Rolling Stones)으로 전세계의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시기의 남성복 소재의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던 많은 하위문화 스타일 중 대표적으로 모즈(Mods), 락커(Rockers), 러드보이즈와 루튼(Rude boy & Two-tone), 히피(Hippies), 글레이즈(Greasers), 스킨헤드(Skinheads), 핑크(Funk)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모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류층 노동자계층의 십대들에 의해서 나타난 스타일로 초기에는 에드워드안 스타일(Edwardian Style)을 흉내낸 테디 스타일(Teddy Style)을 적용하였는데 특징으로는 부분적으로 염색한 부드럽고 짧게 깎은 머리, 흰색 이태리식 니트, 라운드 칼라셔츠, 정교하면서 짧은 로마식 재킷, 부리가 좁은 바지, 끝이 뾰족한 구두를 착용하였다. 모즈들에게는 모헤어 수트가 필수 아이템이었으며 빛과 보는 방향에 따라 미묘하게 색깔이 변하는 2가지 색조(two tone)를 띤 모헤어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sup>6)</sup>.

다음 락커는 저돌적인 태도와 반항적인 아웃사이더로써 타인들과 구별되어졌다. 락커의 시각적인 모습으로 검정재킷에 메탈징을 박거나 상징그림을 그려넣고, 체인과 뾰족한 구두를 착용하였다. 이들의 의복소재로 두드러진 소재로는 검정색의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로큰롤의 거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러드보이즈와 루튼의 전체적인 효과는 걸으로는 조화되지 않는 미의 원리 즉 화려함과 난해함, 이들을 완벽하게 혼합하는데 성공하였다. 형태로는 슬림 팬츠, 싸구려 양가죽이나 튜닉으로 된 재킷 등으로 남성복의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히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경쟁 사회에 대한 반문화적 체제로 공동으로 생활을 하며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였다. 히피들은 현실과 이면의 모순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신비로운 종교세계와 이상주의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들의 의복소재로는 지나친 물질주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였던 천연 소재가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4)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복문화, 경춘사, 1998, p.337.

5) 정홍숙, *op. cit.*, p.389

6) 모현선, 1990년대 남성복식에 관한 연구, 종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8, p.10.

글레이즈는 악마적 경향의 오토바이 무법자라고 불리웠을 만큼 나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 글레이즈 남성들이 선택하였던 의복 소재로는 낡은 가죽과 진(Jean)에 체인이나 뱃지로 장식하여 광채를 더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오토바이라는 매개체와 함께 사회에 대한 반항을 나타내었다.

스킨헤드는 영국의 무산계층의 자녀들이 선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청교도적 노동윤리감을 존중하였고 노동의 기쁨으로 자아존중을 충족하였다. 즉 그들은 주위의 중산계층 스타일이나 히피 패션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 계급을 고의로 과장되게 표현하였는데 찢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옷,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소재, 신체에 밀착되는 신축성 소재 등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핑크는 17세기 당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불결한'의 단어적 뜻을 가지고 있었다<sup>7)</sup>. 이것은 미국 흑인이 전하는 강렬한 느낌의 흑인음악에서 영향을 받아 복장과 꾸미는 장식 스타일로 나타났다. 핑크의 남성들은 음악과 함께 비싼 스웨이드, 뱀가죽, 금속 체인, 화려한 패턴과 광택이 있는 소재 등으로 흥분된 상태를 표현하였다.

이런 하위문화 스타일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 편만한 물질주의 추구경향으로 현란한 색채의 반짝이는 소재와 가죽, 모, 실크 등을 볼 수 있었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문화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자연소재의 부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 2.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초기에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가 심해 소비보다는 절약이 강조되는 시대였으며 중반에 접어들어 경제가 안정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패션에 있어서도 '70년대 유행에 큰 변화를 준 요소는 스포츠였으며 운동선수들이 사회적 명성과 부를 누리면서 일반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착용한 노출된 운동복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일반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8)</sup>.

이 당시의 남성복 소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위문화 스타일 중 대표적으로 글램룩(Glam Look),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헤드뱅거(Headbanger), 스케이터(Skater), 핑크(Punk) 등을 고찰하였다.

먼저 글램룩은 히피스타일에 대한 반발로써 '자연회귀'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내세워 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하는 미의식을 추구하였다. 글램음악인들은 현란한 색의 머리염색과 진한 메이크업으로 근본적인 남성미에 도전하는 양성적인 스타일을 보였다. 의복에 주로 사용되었던 소재로는 광택이 있으며 몸에 밀착되는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남성복 소재의 폭을 넓혔던 것이다.

라스타파리안은 공업화와 인공적인 것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그들의 자연적인 조화의 재발견을 강조하였다. 색채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붉은색, 금색, 녹색 등의 선명한 색깔을 사용하였으며 의복의 소재로는 자연과 조화속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천연소재로 만든 니트류 등의 사용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헤드뱅거는 헤비메탈을 음악적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히피와 락 문화의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스팸텍스, 진, 가죽, 뱀의 표피와 같은 소재들이 그들의 의복에서 이용되었으며 남성복 소재의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스포츠 붐과 더불어 '70년대 초기 스케이팅 보딩은 국제적으로 열광이었다. 10대들은 어디를 가든 스케이팅을 타고 다녔으며 이것이 하위문화의 한 스타일로 정착되었고 바로 이것이 스케이팅이었다. 대표적인 의복형태로는 여분이 넉넉한 팬츠, 기발한 그래픽문양의 티셔츠였다. '70년대 후반 핑크의 영향으로 미국 스케이팅은 고무와 PVC로 된 의상을 착용하여 신섬유 소재를 이용한 스포츠 웨어 개념의 남성복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핑크는 원래 비성숙한 풋내기 젊은이, 소극적인 동성애, 저속하고 값싸며 정신과 건강에서 허약함을 뜻한다.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수용된 미의 개념을

7) 뉴에이스 영한사전, 금성사, 1999. p.911.

8) 정홍숙, *op. cit.*, pp.394-395.

혼란스럽게 만들어 성과 관련된 외모를 결정짓는 단서를 방해하였다. 클럽과 옷핀의 장신구, 담배볼로 지저 구멍을 내거나 일부러 찢어서 구멍을 낸 티셔츠 등 부적절한 아이템들이 펑크패션에 이용되어졌다. 그들의 의복에서 두드러지는 소재로는 여러 가지 협호감을 주는 금속성 장신구와 가죽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 근원적인 의지 표현으로 패션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다.

'70년대 남성복 소재의 경향을 보면 계속해서 동물가죽과 니트류가 주로 애호되었고 또한 스포츠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면서 쉽게 눈에 띄 수 있는 광택 소재와 신축성 소재, PVC, 고무를 이용한 의복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소재들은 여성복 소재와 같이 다양해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의식을 볼 수 있다.

### 3. 1980년대

'80년대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계속 침체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고도 성장의 경제발전에 따라 과도하게 형성되어 온 소비문화가 점차 실용적 욕구에 따른 절제된 소비문화로 바뀌었다<sup>9)</sup>. 또한 사람들은 여가생활을 중요시 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패션 제품의 질적 추구하고 용도의 다양화, 개성화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서 냉전 분위기가 구소련의 개방정책으로 누그러지면서 다양한 국제 교류가 진행되어 지구촌 문화가 급속히 확대되었다<sup>10)</sup>. 이러한 영향으로 패션 경향은 그 주기가 짧아지고 유행을 쫓는 스타일보다는 각자의 나름대로 개성을 위주로 독특한 패션을 요구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특별히 유행하는 스타일이 없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공존하는 현상이 보였다<sup>11)</sup>.

이런 다양한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sup>12)</sup>과 백을 같이하여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절충주의 양식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복식요소로 응용되었다.

1980년대의 남성복 소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뉴로맨틱(New Romantic), 고스(Goths), 캐주얼(Casuals), 퍼브(Pervs), 비보이스(B-boys) 등의 하위문화 스타일을 고찰하였다.

먼저 뉴로맨틱은 영국에서 화려한 칼라와 대못형 머리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스타일이었다. 이 스타일은 필립 사론(Philip Sallon), 보이 조지(Boy George) 그리고 크리스 설리반(Chris Sukivan)을 중심으로 한 레즈비언 클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무정 부혁명의 이데올로기를 고안하기 보다는 옷을 잘 차려입고 클럽을 조직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이들이 착용한 의복의 소재는 노스텔지어의 영향으로 인한 부드러움과 고가의 옷감, 우아하고 화려한 소재 등의 이미지로 상향지향을 추구하는 반펑크족의 미로 나타났다.

다음 고스는 펑크와 글램, 뉴로맨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였는데 10세기의 고딕양식에서 영향받아 검은색의 풍성한 벨벳, 레이스, 그물모양천과 촘촘하게 짜여진 레이스 등으로 남성복 소재의 확대를 보여주었다.

캐주얼은 1960년대 스킨헤드가 프롤레타리아적인 기원에서 그들의 의상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는데 반해 이 스타일은 Lacoste, Lnegs, Lois, Burberry같은 눈에 띄는 고가상품의 옷을 입을으로써 개인적 성공과 부를 나타냈다. 주로 남성복에 사용된 소재로는 스포츠의 대중화로 인한 스포츠웨어로 신축성 섬유가 가미된 천연소재나 합성소재가 주를 이루었다.

퍼브는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의복을 입을 수 백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던 나이트 클럽이 빠른 속도로 거대한 국제적 하위문화로 자람으로써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페티쉬즘(Fetishism)<sup>13)</sup>적인 매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장 크고 가장 멀리까지 뻗어나간 하위

9)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대구효성가톨릭대 석사논문, 1996, p.11.

10) 정홍숙, *op. cit.*, p.399.

11) 정경희, *op. cit.*, p.12.

12)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 20세기 모더니즘을 부정하고 고전적, 역사적 양식이나 수법을 받아들여서는 예술운동.

문화 스타일이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 가죽, 인조가죽, 고무, PVC, 금속성 소재의 의복을 착용하여 인간 원초적 욕구인 성(性)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비보이스는 시각적 비디오 혁명과 함께 랩이나 힙합의 표제아래 새롭고 활기 찬 젊은이 문화에 적합한 패션이 시작되었다. 이 스타일은 젊은이들만으로 제한되어 나타났는데 격렬한 춤동작을 고려한 운동 트레이너복과 운동선수의 보온복같은 형태였다. 이는 합성섬유를 이용한 하이테크(high tech)소재로 광택이 나거나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즉 1980년의 동서 냉전 분위기가 와해되면서 다양한 국제교류가 진행되었고 예술면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 있어서도 여성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소재로 벨벳, 레이스, 니트, 부드러운 실크 등이 사용되었고, 또한 새로운 섬유의 개발로 인해 독특한 광택소재가 보여졌으며 고기능성 직물이 의복에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 4. 1990년대

1990년대 세계 정세는 이데올로기의 퇴조에 따라 정치적 양극체제에서 경제력에 바탕을 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산업공해에 따른 환경 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컴퓨터의 일반화로 전후 컴퓨터 세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sup>13)</sup>.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계속 지속되면서 주요 문화현상으로 자리잡혔으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계층간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어 각 영역의 독자성을 수호하기 보다는 상호 교류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sup>15)</sup>.

이 당시 젊은이들의 특성은 탈질서, 반성실, 자연회귀 등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sup>16)</sup>. 이들은 기존 기성세대들의 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실보다는 합리와 효용을 추구하였으며 현대 기계문명에 대한 방패로 자연처럼 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패션에서도 레트로 룩(Retro-Look)이 유행하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공존하고 서로 조합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90년대 남성복 소재의 변천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스타일로 액시드 재즈(Acid-Jazz), 그런지 룩(Grunge Look), 자마이카 룩(Jamaica Look), 캐주얼(Casual), 사이버 펑크(Cyber Punk)등을 살펴보고자.

첫 번째로 재즈의 절충주의에서 발생한 액시드 재즈는 전통적인 남성복의 진보적 스타일로 전개되었으며 과장과 장식을 배제한 엄격한 미니멀리즘 양식이 기본이 되었다. 남성복에 사용되는 소재로는 세련된 트위드, 플란넬, 헤링본, 섬세한 코듀로이가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사용되었고 지오메틱(geometric)한 미니멀리즘 패턴, 남성스러운 이미지의 스트라이프를 심플한 이미지로 선보였다.

그런지 룩은 능력에 비해 열등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세대에서 나타났다. X-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베이비 붐 탕으로 여겼으며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그런지라는 새로운 문화로 표출하였다<sup>17)</sup>.

그런지 룩의 특징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레이어링 시킨 것과 투박한 울, 고급 벨벳, 가벼운 비스코스, 조밀한 울과 같은 소재의 사용, 복고조의 꽃 무늬 린버 잭플래이드(lumber jack plaid)와 패치워크를 혼합시킨 패턴 등으로 표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자마이카 룩은 9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폐지에 대한 증거로써 첫 흑인 대통령 만델라(Mandela)가 취임하자 음악이나 대중문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관념 하에 '레게 스타일'(Reggae Style)이 유행하였는데, 흑인 음악에 불과

13) 페티쉬즘(Fetishism) : 이성도착증, 이성의 의복이나 장신구 따위로 성적 만족을 얻는 성향으로 락문화의 탄생과 함께 무질서에 대한 즐거운 상징으로서 존재하였다.

14) 정홍숙, *op. cit.*, p.405.

15)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9, p.241.

16) 정경희, *op. cit.*, p.74.

17) 패션 리사이클, Fashion Today, 1994. 2.

했던 레게가 팝계의 흐름을 바꾸고 절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리듬의 단순함, 멜로디의 아기자기한 음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음악의 유행은 '레게 스타일'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으며 자마이카 특유의 밝은 색상과 데님바탕에 고가의 소재로 아폴리케, 패치워크로 장식하여 화려하고 과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 소재는 다른 시기에서도 보여지는 천연소재로 자연과의 친화성을 보여주었다.

90년대 초 미국의 경제불황과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은 포털웨어에 대한 약세와 함께 아웃도어 캐주얼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양상들이 특히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캐주얼웨어의 패션화를 이루게 되었다. 밝고 대담한 디자인, 강렬한 색상의 그래픽 티셔츠, 홈치기 염색, 헐렁한 사이즈, 플레어가 많은 데님진 등으로 남성복 소재에 있어 광택소재나 신축성을 가진 소재의 사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사이버 핑크는 첨단과학 시대의 컴퓨터세대로 PC통신을 통한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에 심취해 있는 무리를 일컫었으며, 레포츠, 오락, 영화, 군사부분, 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사이버 핑크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사이버 문화의 가시화 현상과 이들 사이버 핑크족들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패션계에서 사이버를 반영한 사이버 핑크문화가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하였다. 실버(Silver)

나 네온(Neon) 등의 색상과 플라스틱, 비닐, 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신소재 등의 사용으로 젊은층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이버 핑크문화가 제시되었다.

1990년대는 산업화를 거부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자연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천연소재인 면, 모섬유, 벨벳, 레이스 등 자연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소재를 나타냈으며,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강렬한 느낌은 빛의 반사에 따른 광택소재, 인조가죽, PVC, 고무 등 다양한 소재와 병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하위문화에서 나타난 남성복의 주된 소재들을 <표 1>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천연섬유인 면, 모, 견을 바탕으로 가죽, 레이스, 니트류, 벨벳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합성섬유의 출현으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 많은 형태 소재가 선보였다. 이런 합성섬유에 의한 비쳐 보이는 소재나 신축성이 있거나 신소재로써 특이한 광택을 내는 소재 또한 볼 수 있었다.

### Ⅲ. 1990년대 남성복 소재 분류 및 조형성

20세기 후반의 소비사회 안에서 인체란 좀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들에 의해 끝없이 선택을 당하며 결국 '주관적 의미의 미'<sup>18)</sup>가 중요시되었고 미의 범주 또한 확장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남성복의 소

<표 1> 20세기 후반의 하위문화 스타일에 나타난 특징적 소재

| 년 대    | 스 타 일                                 | 특징적인 소재   |
|--------|---------------------------------------|---|
| 1960년대 | 모즈, 락커, 러드보이즈와 투톤, 히피, 글레이즈, 스킨헤드, 핑크 | 동물가죽(뱀, 소, 양), 화려한 패턴의 광택소재, 모, 실크, 면 등         |
| 1970년대 | 글램록, 라스타파리안, 헤드뱅거, 스케이터, 핑크           | 광택소재, 신축성 소재, PVC, 고무, 동물가죽, 니트류 등              |
| 1980년대 | 뉴로맨틱, 고스, 캐주얼, 퍼브, 비보이즈               | 벨벳, 레이스, 니트, 실크, 합성섬유에 의한 광택소재, 신축성 소재 등        |
| 1990년대 | 액시즈 재즈, 그린지족, 자마이카 록, 캐주얼, 사이버핑크      | 면, 모, 벨벳, 레이스, 광택소재, 인조가죽, PVC, 고무, 고기능성 신축소재 등 |

18) 주관적 의미의 미 : 미적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의 태도 즉 인간의 정신적인 방향에 따라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성립하는 미이다.

재를 사용할 때는 소위 남성적 이미지라고 여기는 두껍고 딱딱한 재질, 거칠고 투박한 소재, 비쳐 보이지 않는 재질, 광택이 없는 재질, 표면질감이 고른 표면<sup>19)</sup>이라 생각된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관적 의미의 미가 더욱 중요시되어 남성복 소재의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따라서 기존 남성복 소재라고 느끼지 못했던 소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광택이 있는 소재, 비쳐 보이는 소재, net 종류에 의한 소재, 신축성있는 소재, 가죽으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만 재질감 분석의 범주로 삼고자 하였다. 여기서 재질은 사물의 표면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촉감을 연상케 하면서 우리의 시·지각에 와닿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치는 성질, 빛의 반사 유무, 표면질감 등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1. 광택이 있는 소재

본 연구에서 광택있는 소재란 시각으로 느껴질 때 빛을 반사시키는 표면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90년대에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광택소재로 벨벳(velvet), 실크(silk)와 기타 합성소재에 의한 광택섬유로 구별하였다. 이런 광택소재는 보통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모현선<sup>20)</sup>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복의 소재분석에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택소재 중 가장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소재로 벨벳을 들 수 있는데<sup>21)</sup> 벨벳의 역사적 변천을 간단히 살펴보면, 귀족층에서만 사용했던 벨벳복식이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신흥부르주아 복식으로 도입되었고 17, 18세기 동안 궁정복식으로 정착되었다.

19세기에는 일반복식으로 확대되어 20세기 동안

새로운 섬유개발과 직물가공법, 염색기술의 발달에 의해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벨벳 패션으로 대중화 되었다.

이렇게 대중화된 벨벳은 현대에 와서 고급스러움과 품위, 우아한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고, 화려함과 풍요, 낭만이 반영된 과거에 대한 향수의 이미지, 호화롭고 신비한 오리엔탈 이미지<sup>22)</sup>, 그리고 세기말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sup>23)</sup>.

특히 20세기 후반에 와서 사회가 국제화를 지향하는 추세로 인하여 현대인들에게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형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쇠퇴되어져 크로스 젠더(cross gender), 젠더리스(genderless), 코섹스(co-sex) 등으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데 성혼용의 개념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sup>24)</sup>. 이런 성혼용의 이미지는 남성 그들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의 표현 또는 이로 인한 획일적인 스타일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Gucci의 작품인 <그림 1>은 소재패턴이 서로 다른 벨벳 조각을 반복적으로 이어 붙여서 느낌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한 형태로 벨벳 자체의 고급스러움과 키치(Kitch)적인 느낌이 같이 공존하는 다원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붉은 색상에서도 말해주듯이 남성에게 많이 쓰이지 않는 색상의 광택소재로 획일적인 스타일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크 또한 벨벳과 같이 다원성을 볼 수 있는 소재로 들 수 있다. 이 실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직조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기원 1세기 경에 유럽에 소개되었고 대개는 누에, 일부 천잠, 작잠(柞蠶)의 번데기가 고치를 칠 때 내는 단백질 섬유 또는 그걸로 짠 천을 실크라 한다. 실크는 곱고 질기며,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아름다운 외관으로 인해 섬유의 여왕이라고 불린다<sup>25)</sup>

19) 김경옥,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7.

20) 모현선, *op. cit.*, p.30.

21) 모현선, *op. cit.*, p.29.

22) 정소영, 조귀화, 벨벳의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학회지, 1998, vol. 2, No. 1 pp.49-51.

23) 삼성패션연구소, *sfi.co.kr*. 세기말적소재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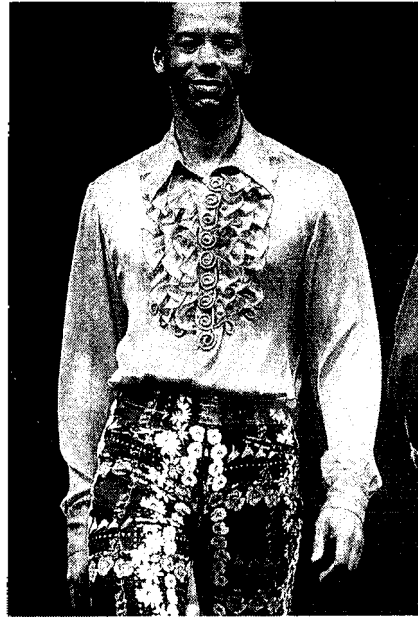
24) 현선진, 후기산업사회 서구적 남성복식에 표현된 유희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7, p.71.

25) 김수경, 패션사전, 디자인신문사, 1991.





<그림 1> *The Man of Fashion*, Gucci, 199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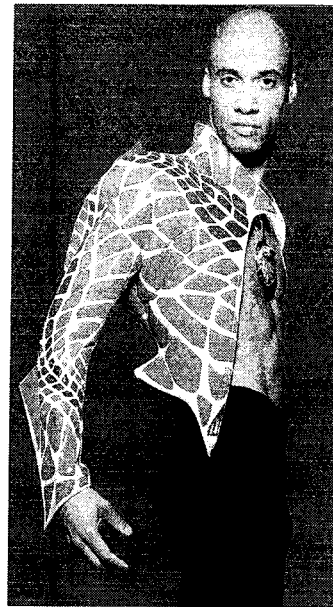


<그림 2> Yoshiyuki Konishi, Tokyo, 1995.

유럽에 소개된 이래로 실크는 남성복에 여러 형태로 많이 적용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남녀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남자는 남자답게 입어야 한다는 기존 의식을 타파하였으며 성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유희의 수단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Yoshiyuki Konishi의 작품 (그림 2)은 실크셔츠로 부드러운 광택, 소매 끝부분의 주름과 앞부분의 러플장식, 앞중심의 꽃장식이 셔츠 칼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소재와 디테일의 절충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가 된 팬츠에서는 키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성복을 그대로 입은 듯한 인상마저 준다.

합성섬유에 의한 광택 소재는 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해 개발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직물과 차별화 되는 고유의 독특하고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재라 할 수 있었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다양한 합성 섬유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광택을 연출할 수 있다. 기존의 남성복의 소재의 느낌에서 볼 수 있는 표면재질이 고르고, 광택이 없는 재질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택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The Man of Fashion*, Jacket by Thierry Mugler, 1992.

Thierry Mugler의 작품인 <그림 3>의 경우 광택소

재의 다른 표현으로 스웨이드와 같은 부직포 직물에 반짝이는 고무소재를 조각내어 붙여 신체를 전위적으로 표현해 강한 남성적 이미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것은 남성복 소재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모습양상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광택있는 부자재 등을 이용함으로써 의복 표면에 인위적으로 광택있는 질감을 표출해 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소재를 보면 반짝이는 스팅글이나 비즈, 구슬, 단추 등으로 의복의 전면을 도포하거나 일부분을 덮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Jean-Paul Gaultier 작품인 <그림 4>는 스팅글을 이용한 수트의 모양의 형태로 반짝거리는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광택소재의 수트는 평범한 수트에 광택을 부여하여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고 패션의 절충주의에 의한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하였고 또한 이 광택성질은 양성적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남성복 소재 변화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인 <그림 5>의 경우, 반짝이는 구슬을 전면에 도포한 형태이고 허리가 잘록한



<그림 5> *The Man of Fashion*, Vivienne Westwood, 1996~7.

여성스러운 X자형 실루엣이다. 그러나 반짝이는 구슬소재로 남성 신체의 근육을 더 크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남성적인 미의 표현과 여성적인 실루엣의 결합은 성혼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 2. 비치 보이는 소재

20세기 후반 몸이 그대로 비치 보이는 반투명적이 나오면서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노출하여 기능적 면보다는 에로틱한 이미지로 성적 매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고 또한 남성복에 있어서도 전이되어 양성적 성격이 반영되었다.

시스루(see-through)의 사전적 용어해석으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나타내기 위해 피부를 드러내는 패션을 말하며 누디룩(Nudy Look), 베어룩(Bare Look)이라고도 부른다. 1960년대 후반에는 오건디, 쉬폰, 비닐 등의 투명천으로 된 블라우스나 셔츠 등으로 몸매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부드럽고 여성다운 패션이다<sup>26)</sup>라고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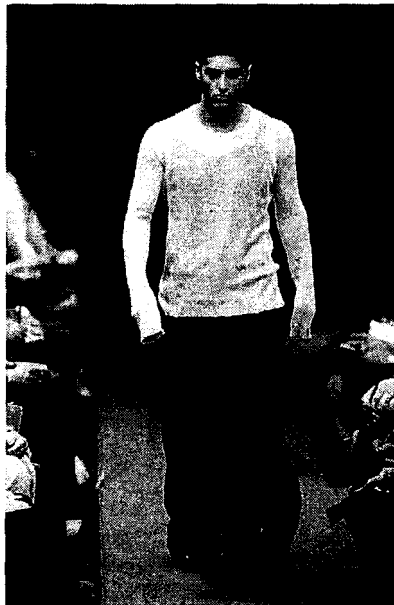
<그림 4> *The Man of Fashion*, Jean-Paul Gaultier, 1997.

26) 김수경, *op. cit.*, p.140.

비쳐 보이는 소재는 현대 남성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관능미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욕망과 이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자유롭게 표출되어 남성복에서 터부시되었던 인체의 노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남성복에 있어 기존의 소재 특성인 두껍고 불투명해야 한다는 관념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의 남성신체 노출은 전통미와 퇴폐미,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금욕주의와 색수업리티 등의 이분법적 해석을 부정하고 신체의 유희를 즐기고자 하는 적극적 감성 표현에 의해 나타내고 심미성과 관능성을 표현한다<sup>27)</sup>.

Dolce & Gabbana의 작품인 <그림 6>은 속옷이 겉옷 밖으로 비쳐 보이게 하여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성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주관적 미의식의 확장으로 인한 퇴폐미와 추의 미로 인지되어진다.

또한 비쳐 보이는 소재를 통한 신체의 노출은 은



<그림 6> Firstview.com, Dolce & Gabbana, 1997 S/S.

밀한 관능미를 표현하였고 이런 소재의 다양화는 미적 표현력의 범위를 넓혀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3. Net 종류에 의한 소재

Net 종류의 소재로는 레이스(face)와 니트(knit)로 구분하였다.

먼저 레이스는 장식천으로 자수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나 자수에 쓰이는 바탕천이 없는 것이 틀리다. 15세기 이전에 레이스가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자수로 무늬를 만든 고대 이집트의 네트로 발견되었다<sup>28)</sup>.

레이스는 여러 세기 동안 남성복에 있어 다양하게 상징되어졌다. 16세기에는 궁정 사람들의 지위와 부를 상징하였고 17세기에는 남자의 존경의 척도로도 나타내어져 정부 고관이나 성공한 상인 또는 귀족들이 레이스를 하였으며 성직자의 의복에 레이스는 순결함, 우아함과 관계 있었다. 오늘날 남성복에 있어 레이스는 더욱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청결함, 그리고 그들의 성별을 확신하는 남성들에게 성 파괴, 혼함을 어필하였다<sup>29)</sup>.

1960년대 이후부터 남성복식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표현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점점 화려해졌다. 당시대의 남성들은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을 통해 의복에 있어서 남성의 자기도취를 금해온 순종적 문화에서 자기 도취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 듯 했고 이에 따라 양성적 이미지가 유행되었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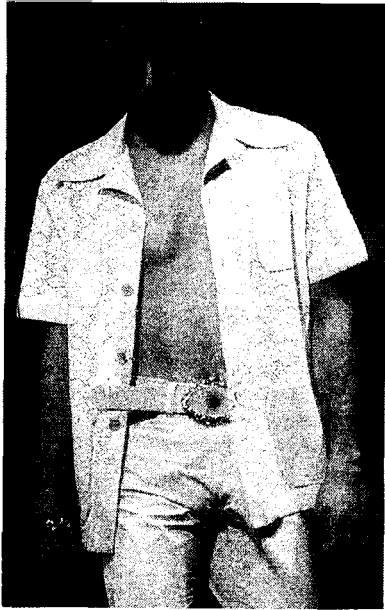
KOR의 작품인 <그림 7>은 양성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레이스 소재의 남성복은 기본적인 셔츠 형태에 레이스를 사용하여 소재와 디테일간의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화를 탈피하며 남녀의 대립적인 면을 거부하여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문화와 사회적 성(gender)으로 구축된 양성적 복식을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 주제성의 해방으로 휴머니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었다<sup>31)</sup>.

27) 현선진, *op. cit.*, p.64.

28) 김수경, *op. cit.*, p.47.

29) Colin McDowell, *op. cit.*, p.18.

30) 이민선,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1999, vol. 24, No. 6, p.781.



<그림 7> VIEW, KOR, 1997 S/S.

Net 종류에 의한 소재로 니트는 가벼움, 따뜻함, 유연한 외양을 갖춘 편안한 소재로써 여성의 몸매를 잘 나타내는 소재이다. 그러나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소재인 니트는 여성적 성격을 띤 남성복에서도 나타나 코트, 자켓, 조끼, 바지, 넥타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sup>32)</sup>, 1920년대에 패셔너블한 캐주얼복의 적당한 아이템으로 인정을 받았다<sup>33)</sup>. 1960년대에 니트웨어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타이(Tai)와 로시타 미서니(Rosita Missoni)에 의해 무수한 색과 정교한 패턴으로 더욱더 복잡한 것이 되었다. 이런 것은 유행에 민감한 부자들이 입었고 상속할 만큼 바르게 보존되었으며 현대적이면서 클래식하여 패션에서는 드물게 완전히 시대를 초월하였다<sup>34)</sup>.

니트는 세기를 통틀어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졌으며 자연주의를 모티브로 한 에콜로지의 영향을 받은 그런지 룩, 캐주얼 룩에서 많이 보여졌다.



<그림 8> Krizia, Milano Collection, 1995 S/S.

Krizia의 작품 <그림 8>을 보면 니트 소재는 그 소재가 갖는 신축성으로 인해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울동감을 주고 니트의 특징인 편안한 착용감, 가볍고 따뜻한 보온성을 준다. 또한 인간의 성(性) 즉 남성, 여성의 한부분의 성을 부각하기 보다는 양성적 이미지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니트가 여성의 몸매를 잘 나타내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김경옥<sup>35)</sup>의 연구에 의하면 소재에 있어 여성보다 월등히 많이 남성복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모현선<sup>36)</sup>의 연구에서도 광택소재 다음으로 니트가 남성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 신축성 소재

과거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정된 사회계층으로 국한된 반면에 현

31) 현선진, *op. cit.*, p.74.

32) 김세영,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p.45.

33) Colin McDowell, *op. cit.*, p.131.

34) Colin McDowell *op. cit.*, p.132.

35) 김경옥, *op. cit.*, p.57.

36) 모현선, *op. cit.*,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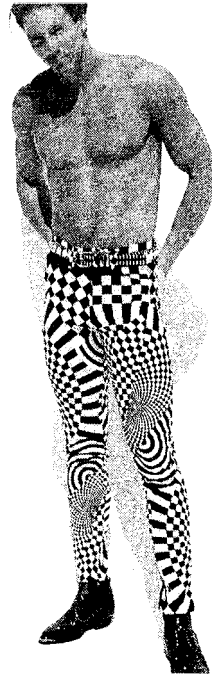
대에 와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레저 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대중화된 스포츠는 운동선수들에게 높은 인기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의상이나 행동은 대중들에게 광적으로 추종되어졌다. 그로 인해 스포츠복 등의 기능성 의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sup>37)</sup> 혼방으로 인해 신축성 및 유연성을 부여한 스트레칭 소재 등이 생산되었다.

스포츠는 남성의 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표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써 남성들은 스포츠를 통하여 역동미, 관능미, 기능미를 추구하여 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남성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동경에서였다<sup>38)</sup>. 이런 섹슈얼리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즐기려는 심미적인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신축성 소재에 의해 신체의 간접적인 노출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도덕적으로 남성 신체의 노출을 승인하지 않던 시대에 노출이 시인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스포츠웨어의 개념이 많이 변화한 시기로 스포츠웨어는 테니스장, 수영장 같은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때와 장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활동복으로 정의되어졌다. 특히 1958년 뉘퐁사(Du Pont社)에 의해 처음 개발된 속옷재료로 쓰여지던 라이크라(Lycra)는 고기능성 직물로서 수영복, 운동복에 이용되다가 일반 하이패션에 도입되는 등 패션계의 유행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sup>39)</sup>.

그래서 하위문화도 신축성 소재는 어떤 한 스타일에 국한을 두지 않고 많은 스타일에 응용되어졌다.

Gianni Versace 디자인의 <그림 9>는 마니멀한 형태의 바디컨셔스 스타일로 가슴을 노출시켜 남성의 근육을 강조하고 옵아트문양의 팬츠를 신체에 밀착시켜 남성적인 섹슈얼리티와 강건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런 신축성 소재는 20세기 전 반기의 전통적인 흐름인 수트와는 달리 통속성, 풍자성, 관능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하위문화집단의 반항성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9> Gianni Versace, 1992 S/S

### 5. 가죽(Leather)

가죽은 오늘날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50년대 중반 당시만 해도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경향<sup>40)</sup>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54년 말론 브란도(Marlon Brando) 주연의 'The Wild One'에서 주인공의 가죽 점퍼차림은 그 이후 여러 스타일에 영감을 주었는데 그의 검정색 가죽 모터사이클 재킷은 전쟁터에서 돌아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군복무자의 반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후 제임스 딘(James Dean), 지미 빈센트(Geme Vincent)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와 같은 대중 스타에 의해 전승되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가죽은 타협하지 않는 반항적인 사회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왔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소재로 어필되어졌다. 또한 가죽은 힘의 상징으로 2차 세계 대전에서 비밀경찰과 은둔군인들은 위반하지 않겠다는 힘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

37) 신정숙, 섬유신소재의 이해, 교문사, 1998, p.95.

38) 현선진, *op. cit.*, p.66.

39) 유송옥 외 2인 *op. cit.*, p.238.

40) 정경희, *op. cit.*, p.42.

해 가죽을 착용하였다. 이는 그 자체가 오늘날의 가죽 착용자들에게 전환되어 성적인 힘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과 성적인 의미는 검정색에 의해 더욱 증폭되어지고 갈색 등 다른 색상의 가죽에는 그러한 강한 이미지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sup>41)</sup>.

이 가죽은 하위문화스타일에서 지속적으로 채택된 소재로 1960년대 락커, 글라이즈, 1970년대 헤드뱅거, 펑크, 1980년대 퍼브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회적 지위와 열등의 표시로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감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의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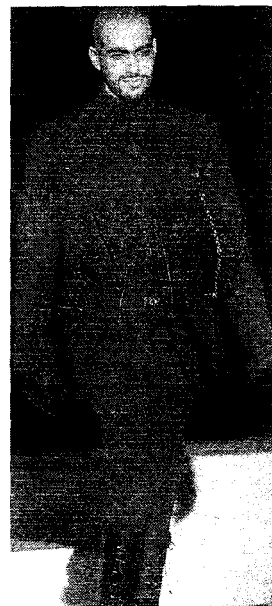
스트리트 패션으로 일본 시부야의 펑크족 중 한 명인 <그림 10>은 대못형 헤어스타일을 하고 금속 장식이 달린 검정색 가죽 자켓과 바지로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남성미와 그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sup>42)</sup>에서 보면 가죽이 1980년~1995년 동안의 남성복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여성복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남성 소재의 전체 사용을 볼 때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하위문화스타일에서 빠질 수 없는 가죽은 점점 남성이 여성화, 양성화 되어감에 따라서 힘의 상징으로 나타난 검정색 가죽은 쇠퇴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Claude Montana의 작품인 <그림 11>은 색상이나 실루엣 면에서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쓰인 가죽의 외형과는 다르게 변화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소재 측면에서 똑같은 가죽을 사용하지만 electric blue색상에 절제된 디테일의 가죽 재킷과 바지로 모던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반항적이고 어떤 집단의 소속감을 위해서 입혀졌던 예전의 가죽이 근래에 와서는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의 표현으로 다양한 색상과 실루엣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용도와 의미가 변함에 따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조형적 특성 또



<그림 10> Yuriko a Japanese Punk, Shibuya Street Style, T&H, 1993.



<그림 11> Claude Montana, Uomo Collezioni, No.14 1994-5 A/W.

41) Coilm McDowell, *op. cit.*, p.167.

42) 김경옥, *op. cit.*, p.57.

&lt;표 2&gt; 소재분류에 따른 조형성

| 소재 분류  | 조형성  |
|--|--|
| 광택이 있는 소재<br>(벨벳, 실크, 합성섬유에 의한 광택소재, 부자재에 의한 광택소재) | 1. 성(性)표현의 변화<br>(성흔용, 성과괴)<br>2. 관능미의 표현<br>(주관적 미의식의 확장)<br>3. 양성화의 표현 |
| 비쳐 보이는 소재  |  |
| Net 종류에 의한 소재(레이스, 니트)                             |  |
| 신축성이 있는 소재   |  |
| 가죽   |  |

한 변화되었고 이는 남성이 여성화, 양성화 되어가는 맥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소재분류를 통한 소재의 조형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표 2>는 이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IV. 결 론

오늘날 남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패션화 경향이 남성복에 있어서도 대두가 되면서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여성복과 동등하거나 남성복만의 독특한 패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남성 스스로에게 족쇄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심세하고 부드러운 성향과 성을 어필하는 경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남성복의 표현에 있어 힘과 위엄의 상징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미의 새로운 시도로 표출되었으며, 이런 남성복 패션을 결정짓는데 있어 소재는 디자인 창조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는 20세기 후반부의 다양한 소재가 보인 하위문화 스타일을 중심으로 현대 남성복 패션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남성복 중 전통적인 남성복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 중심으로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즉, 광택이 있는 소재, 비쳐 보이는 소재, net 종류에 의한 소재, 신축성이 있는 소재, 가죽으로 요약되어진다.

첫째, 광택이 있는 소재는 빛을 반사하는 표면성질을 띤 소재로 고급스러움과 품위, 우아함, 오리엔탈 이미지를 띤 벨벳과 화려함과 과거에 대한 향수

이미지의 실크,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의 인공적 광택소재, 반짝이는 구슬이나 스팅글을 이용하여 신체를 좀 더 확대해 보이게 하는 부자재에 의한 광택소재로 분류되어진다. 위 소재들은 남성다움을 더욱 강조하거나 반대로 여성적인 경향을 보여 남성복에 있어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비쳐 보이는 소재는 남성의 신체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였다. 이 소재의 다양화는 주관적 미의식의 확장으로 인한 퇴폐미와 추의 미로 인지되어진다.

셋째, net 종류에 의한 소재 중 레이스는 과거 남성복에 있어 성직자의 의복으로 순결함과 우아함을 나타냈고 여성의 전유물로 여성성을 나타내는 소재로 인식되지만 1990년대 레이스는 남녀의 대립적인 면을 거부한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net 종류에 의한 소재로 니트는 세기를 통틀어 남성에게 많아 나타나지만 그 특성이 여성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편안한 착용감, 보온성, 신축성과 같은 기능성 소재로 남성에게 있어 양성성을 나타내는 또 한가지 소재로 인식된다.

넷째, 신축성이 있는 소재는 신체에 밀착되어 과거 남성적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던 소재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신소재가 개발되고 가수나 영화배우에 의해 입혀져 널리 보급되었다. 이 소재는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섹슈얼리티는 남에게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즐기려는 심리적인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족은 다분히 반항적 요소가 내재되어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힙과 소속감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점차 여러 신소재의 개발과 남성의 여성화, 양성화 경향으로 인해 가족소재의 색상과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의 남성복 소재의 변화는 과거 20세기 후반 저항, 반항의 반사회적 가치관과 청소년 문화의 상징적 의미 등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패션생활을 즐기고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화를 거부하는 남성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복 소재는 여성복 소재에 비해 소재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이를 탈피하여 새로운 미의식이 표출되었다. 특히 1990년대 와서는 신소재의 지속적인 개발과 여성화, 양성화되는 경향이 남성복의 소재 변화의 가속화되어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쓰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성복 소재를 크게 5 가지로 정리하였으나 그 밖의 다양한 소재의 조형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경옥, 현대패션에 나타난 엔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7.

김세영, 현대 남성복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p.45.

김수경, 패션사전, 디자인신문사, 1991.

모현선, 1990년대 남성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8, p.10.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복문화, 경춘사, 1998, p.337.

신정숙, 섬유신소재의 이해, 교문사, 1998, p.95.

유송옥, 이운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9, p.241.

유정하,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p.1.

이민선,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24(6), 1999, p.781.

정경희, Street Fashion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대구 효성가톨릭대 석사논문, 1996, p.11.

정소영, 조귀화, 벨벳의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학회지, 2(1), 1998, 49-51.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p.309.

현선진, 후기산업사회 서구적 남성복식에 표현된 유희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7, p.71.

Colin McDowell, *The Man of Fashion, Thames & Hudson*, p.138.

뉴에이스 영한사전, 금성사, 1999. p.911.

삼성패션연구소, sfi.co.kr. 세기말적소재경향.

패션 리사이클, Fashion Today, 1994. 2.